SM 신증설 허용 유보

상공부, 석유화학산업계 의견수렴 … 삼상, 대만과 합작 난관

정부는 현재 투자지도대상 품목으로 신규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SM의 신증설을 당분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과잉설비투자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석유화학산업의 경기가 최근 크게 호전, 국내 일부기업이 설비증설 의사를 밝혀와 수출조건부로 제한적인 설비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다.
삼성종합화학은 최근 생산전량을 수출한다는 조건하에 대만의 ChiMei와 합작으로 연산 20만톤 규모의 SM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럭키·유공·동부화학·현대석유화학·대림산업 등 6개 SM 생산기업과 미원유화·효성바스프·신아·제일모직 등 SM을 중간소재로 사용하는 4개 PS 및 ABS 수지 생산기업들은 특정기업만의 신증설 허용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국제시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들의 잇따른 돌발사고로 공급부족이 빚어지면서 국제시세가 크게 등귀하고 있다.
상공부는 그러나 그동안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낙폭이 워낙 컸던 터라 최근의 국제시세 폭등에도 불구 가격이 아직 9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제조원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가격회복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증설 허용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공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에 대해 SM 등의 장기수급 전망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이를 유관 연구기관의 장기예측과 비교해 신증설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SM의 국내 생산능력은 럭키 33만톤, 유공옥시케미칼 25만3000 톤, 삼성종합화학 24만톤, 동부화학 21 만톤, 현대석유화학 12만5000톤, 대림산업 12만톤 등 총 127만8000톤 정도이다.

<화학저널 1994/9/26>